

대답들을 잠재적으로 역추적하는 , 공간들에 할당한 질문들이다 .

엘름그린 & 드라그셋 , ‘ Spaces ‘

_ 권혁준 (@m0hemian)



엘름그린 & 드라그셋의 다층적 설치 : 전시 ‘ Spaces ‘ 독해

엘름그린 & 드라그셋의 전시 ‘ Spaces ‘ 는 네 개의 주요 공간 (Shadow House , The Cloud , The Kitchen , The Amorepacific Pool) 과 그 내부에 배치된 40 여 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, 현대적이고 나선형적인 서사 구조를 보여준다 . 이 전시는 단순한 공간의 나열을 넘어 물리적 투과성과 시각적 투명성을 탐구하며 , 공간 , 객체 , 그리고 관객 간 상호작용의 본질에 질문을 던진다 . 이는 전시가 지닌 상업적 매끈함과 거대 스케일의 조형적 언어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, 사회적 , 인간적 관계를 비선형적인 설치로 재구성한다 . 이 비평은 이러한 특성들에 연관된 몇몇 질문들을 역추적하며 , 각 공간이 제기하는 개념적 함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.

1 . Shadow House

Shadow House 는 공간적 투과성과 시각적 관람 가능성의 문제를 극단적으로

실험한다 . 완전불룩한 조형물은 배경과의 초점 차이를 통해 관객의 시각적 경험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, 그 이면의 세계를 ‘ 가상의 함수 ’ 로 대체한다 . 이는 관객이 작품을 마주할 때 느끼는 거리감을 심리적으로 극대화한다 .

특히 , 공간 내부의 가구들은 촉각적 상호작용을 배제함으로써 , 관객과 공간 간의 관계를 제한적이고 비물질적인 것으로 설정한다 . 이러한 설정은 집이라는 사적이고 친밀한 공간이 갖는 내러티브를 해체하고 , 관객을 물리적 벽 너머로 멀리 밀어낸다 .

조형적 구성에서 실내의 사람과 실외의 사람은 마주보지만 , 관람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들은 미묘한 상하 관계를 형성한다 . 이는 공간적 위계와 관람의 방향성을 암시하는 문구 “ 다시는 보지 말자 ! ” 를 통해 더욱 강조된다 . 이러한 상황에서 , 관객은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, 전시가 설정한 공간적 규율의 수동적 수행자로 위치 지어진다 .

2 . The Cloud

The Cloud 는 경계적인 상태와 관객의 존재론적 위치를 탐구한다 . 구름 , 실시간 영상 , 럭셔리한 다이닝 테이블 등은 각기 다른 서사적 조형물로 배치되어 , 관객으로 하여금 그 사이를 떠돌게 한다 . 관객은 이들 사이에서 주체적 위치를 찾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, 그들 각각을 초월하지도 , 온전히 소유하지도 못한다 .

전시 내 유일한 상호작용적 요소인 메뉴판은 시간적으로 고정된 채 , 마치 잉크가 없는 프린터처럼 기능한다 . 이는 관객이 기대하는 물리적 상호작용과의 괴리를 은유하며 , 관람의 행위 자체를 비물질적 경험으로 전환시킨다 . The Cloud 는 현대적 욕망과 상호작용에 대한 관객의 기대를 지연시키며 , 공간적 유예의 서사를 구축한다 .

3 . Untitled (The Kitchen)

The Kitchen 은 생산과 소비 , 공정화와 개인화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해체하

며 , 현대적 소비문화의 정치학을 탐구한다 . 전시는 DIY 적 생산 과정을 강조하며 , 포스트 _ 포디즘적 맥락에서 개인 생산의 공정화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.

그러나 이 공간은 그 미래적인 지구를 단순히 제시하기보다 ,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유효한지를 문제 삼지 않음을 전면에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관객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진다 . 설치물 내의 생명학적 위급성과 차가운 조명 , 앵클벨 등의 요소는 공간적 차가움과 긴장감을 부각시키며 , 조형물의 물질성과 정서적 거리감을 극명히 드러낸다 .

4 . The Amorepacific Pool

The Amorepacific Pool 은 폼페이식으로 고정된 유선형 구조물들 , 그리고 애프터라이프적 상징들을 통해 권위성과 반권위성 사이의 긴장을 탐구한다 . 반시계 및 시계 방향으로 교차하는 동선들은 관람 경험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, 수영장을 둘러싼 조형물은 서로를 강하게 무시하는 듯 배치된다 .

특히 , 관객들 사이의 단절감은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 동행자를 반드시 포함시키려는 행위 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. 이는 관람이라는 행위 자체가 공간적 투명성과 상호작용이라는 테마로 환원됨을 보여준다 .

엘름그린 & 드라그셋의 ‘ Spaces ‘ 는 단순히 공간의 물리적 배치를 넘어 , 관객과 공간 , 작품 간의 다층적 상호작용을 탐구한다 . 이는 공간을 단순히 조망의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, 관객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전시의 경계성을 재고하도록 만드는 실험적 플랫폼으로 재구성한다 . 이러한 접근은 물리적 , 심리적 , 개념적 경계를 초월해 동시대 공간 비평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.

‘ Spaces ‘ 전시의 치명적인 한계는 그 사고와 감각 체험이 모두 해당 장소에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. 광대한 구조물들은 스펀지 같은 다공성을 가지고 있고 , 벽을 투과하여 날아다닐 수 있고 , 고로 접을 수 있다 - 즉 , 시공간의 차원에서 플랫폼하다 . 그렇기에 , 해당 전시에서 출발한 사고들은 , 원하는 공간에 원하는 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따스한 유령들 같은 상태가 아니라면 동기화될 수가 없는 성질을 띤다 .

즉 , 해당 전시는 공간 설치의 측면에서도 , 미감의 측면에서도 , 개념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크리티컬한 질문들과 참조점들을 제공하였지만 , 미술관의 정문을 나서서 거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승화해버리는 휘발성 대응들이었다 . 이에 , 나는 파편화된 미완의 문장들을 작성하고 , 이를 ChatGPT 에 프롬프팅하여 해당 비평을 완성하였다 .

조금 더 길고 그럴듯하게, 미술 비평 세계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적어주라



엘름그린 & 드라그셋의 다층적 공간 연극: 전시 *Spaces*의 비평적 독해

반투과성 공간들 / 불투명한 사물들

- 생산의 공정화를 넘어서 , 개인 생산의 공정화 , 포스트 _ 포스트포디즘 , 그리고 DIY 적 요리 - 중요한 것은 , 해당 설치의 지시하는 가상의 공학 - 미래적 지구 - 가 얼마나 유효하냐는 아니다 .
- 위급한 생명학과 앵클벨 , 라이팅 - 평면적 조각은 왜 차가운가 ?
- 유선형 선입견 , 고정해 품페이 처리된 구조물들 , 관리자의 애프터라이프 -> 그것은 권위성을 상징하는가 , 반 - 권위성을 상징하는가 ? (혹은 , 이러한 표현들 또한 권위적인가 ?)
- 공간의 투과성에 관한 설정들 : 완전불록한 조형물의 배경과의 초점 차이에 관하여 : 작품을 그 건너편을 얼마나 실제와 가깝게 볼 수 있는냐로 대응시키는 가상의 함수에 대하여
- 구름과 실시간 영상 너머의 사람 , “ 오늘밤 나를 가져 “ 의 전파 은하계를 넘어서 회백질의 사람 , 그리고 그것과 렉서리한 파인 다이닝
- ...

... 그리고 이 글은 , 해당의 대답들을 잠재적으로 역추적하는 , 해당의 공간들에 할당된 몇몇 질문들이다 .

*/